

서효인의 '소설처럼'



떠난 이들이 어떻게든 애쓰는 노래

-김유담, '탬버린'

이번 선거도 수도권에서 승부가 갈렸다고 한다. 많은 의석이 서울-인천-경기도에 몰려 있으니 산술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의 지역구 승부처 대부분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이를 토대로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되었다. 지금의 여당이 기록적인 참패를 기록한 18대 총선의 대한민국 지도는 호남이 고립된 모양새였는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겠다.

보다 중립적으로 효과적으로 선거 결과를 살피기 위한 픽토그램(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같은 의미를 통할 수 있는 그림으로 된 언어체계)이 제시되었는데, 지역구의 면적과 상관없이 지도를 의석으로 배분한 것이다. 빌집을 연상시키는 이 픽토그램은, 선거 결과와는 별개로 과밀화-거대화된 수도권의 위용을 극적으로 상기시킨다.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정치는 물론이고 무엇이든지 우리나라는 수도권에서 통하면 된다. 정치·경제·사회·예술……, 그 어떤 것이라도 말이다. 대부분 거기에 있으니까, 이 또한 산술적으로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의 본질이 바뀌기는 어렵다. 지방의 인제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지방의 인력은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한다. 필자도 마찬가지로 목포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자랐으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그리고 지금은 2기 신도시의 입주민이 되어 총선 결과를 보며 목포에 사는 어머니와 간단한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수도권 시민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해에 올라와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치사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듯이 지방 청년의 수도권 상경기도 거세게나 잔잔한 파도의 연속이었다. 시가지 불광동 반지하방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글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신인 작가 김유담의 첫 소설집 '탬버린'을 읽고 나니, 이토록 복잡하고 다난한 수도권에 제 발로 편입해 스며들기 위해 발버둥쳤을 수많은 얼굴들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산업화 시절부터 이어진 '서울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만큼 지방은 왜소해진다. 전라남도 00군이 장래에 곧 사라진다는 예측은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아니게

된 것이다. '탬버린'은 이토록 왜소한 지방 도시를 가가스르 떠났거나, 떠나길 바라거나, 도리어 그곳에 부둣불 다시 돌아간 청년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여성의 이야기다. 작가의 등단작인 '핀 캐리'는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대신에 가장 노릇을 하던 오빠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오빠는 지역 주류회사의 막걸리를 운송하는 일을 했고, 새벽 운행 중 사고로 숨진다. '나'는 오빠가 남긴 수첩에서 아마추어 불링 선수였던 그가 내기 불링에 집착이라 할 정도로 몰입해 있었음을 발견한다.

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불링 핀의 이미지는 읽는 이를 아이러니에 빠지게 한다. 시원하게 쓰러지는 핀은 경쾌하고, 스페어를 처리하는 기술은 섬세하다. 하지만 오빠의 삶은 경쾌하지도 섬세하지도 못하고, 그 삶의 끝을 받아 안은 나의 삶 또한 그렇게 표류할 참이다. 나는 새로운 프레임이 시작된다는 인식이 없이 직접 융합되어 있으므로 치아에 비해 움푹임이 훨씬 더 적다. 따라서 임플란트 주위 질환에 이환된 경우 잇몸의 출혈, 입냄새 등으로 치과 병원을 방문하게 된다.

고령자의 임플란트 유지 관리



김병욱
조선대치과병원 치주과 교수

한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치과 의사들로부터 "임플란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신다. 아마도, 담당 치과 의사는 얘기했을 테지만 젊은 사람들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임플란트를 심고 20년이 경과된 후의 치아 생존율이 약 95%라는 보고가 있는데, 이런 결과는 적절한 관리를 받았을 때에만 나타난다.

임플란트를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먼저, 자연치에서 치주병(퐁치)이 발생되었을 임플란트에서도 치주병(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위 질환이라 함)이 발생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즉 임플란트와 잇몸 주위에 서식하고 있는 세균의 수를 적절하게 감소시키지 못하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더불어 나쁜 습관(이갈이나 편측 저작)이 있다면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뼈(치조골)는 훨씬 더 심하게 흡수된다. 이로 인해 임플란트를 고정시키는 잇몸뼈가 녹아서 음식을 깨무는 것도 어렵고, 임플란트가 흔들리게 돼 결국에는 뺄을 수밖에 없게 된다.

다음으로 치아와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고정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치아의 뿌리(치근)와 잇몸뼈 사이에는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조직(치주인대)이 있다. 그래서 잇몸에 염증이 없더라도 치아는 약간 움직이며, 염증이 발생되면 훨씬 더 많이 움직이고 통증이 있어 쉽게 자각할 수 있다. 반면, 임플란트와 잇몸뼈 사이에는 치주인대라는 조직이 없이 직접 융합되어 있으므로 치아에 비해 움푹임이 훨씬 더 적다. 따라서 임플란트 주위 질환에 이환된 경우 잇몸의 출혈, 입냄새 등으로 치과 병원을 방문하게 된다.

임플란트 주위 질환의 치료법으로는 우선 스케일링과 염증 치료가 꼽힌다. 수술로는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삭제형 수술, 골이식재를 사용해 잇몸뼈를 재생시키는 재생형 수술 등이 있다. 그리고 임플란트 길이의 3분의 1정도만 잇몸뼈에 고정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한다.

임플란트를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현재까지 보고된 가장 좋은 방법은, 임플란트 주위 질환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첫 번째 예방법으로, 가정에서

수 있을 만큼 정확하고 빠들까? 김유담 작가는 선부른 답변을 보류한 채, 뒤이은 작품들로 불링공의 회전과 세기를 그린 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던 대학 생활을 잠시 접고 고향에 돌아와 그곳의 남자와 잠시 연애하는 나, 저렴한 치과를 검색해 찾은 낯선 병원에서 우연히 유년 시절의 친한 동생들을 마주친 나, 강압적인 분위기의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탬버린을 흔들며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를 떠올리는 나……. 소설 속 '나'는 2020년의 청년이며 그들은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살이를 하거나, 임대주택에서 자라나 홀로 삶을 견사하거나, 불능인 가족과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지키려 애쓴다. 그 인물들 중에 밀양이나 함평 같은 곳에서 기어코 서울로 떠나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정이 가는 것도 어쩔 수 없었다. 마포에 홀로 사는 동생이 떠올라서였을까, 마포의 동생을 늘 걱정하는 목포의 어머니가 떠올라서였을까. 모르겠다, 모르겠다……. 다만 내 손가락에도 묵직한 불링공이 걸려 있는 듯해, 괜히 손목을 만지작거리 본다. <시인>

社說

노동계 상생 초심으로 '대화의 장' 복귀를

노동계의 협약 파기 선언으로 좌초 위기를 맞은 '광주형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광주시와 지역 경제계,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 공장 합작 법인에 투자한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들이 사업 철회까지 거론하며 통보한 '최후 통첩'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사회가 한마음이 되어 노동계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노동계가 없는 광주형 일자리는 생각할 수도 없다"며 노동계와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시장은 "이미 노동계의 요구 사항 중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노동이사제)을 제외한 모든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일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끝까지 노동계의 복귀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상인연합회도 각각 성명을 내고 노동계가 광주 시민의 열망을 받들고 지역

청년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에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제21대 총선 광주 지역 당선자들도 광주시와 한국노총 광주본부와 차례로 방문, 양측의 입장을 들은 바 있다.

그동안 관망 중이던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최근 한국노총 광주본부를 찾은 데 이어 어제 이 시장을 만나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핵심 쟁점인 '노동이사제'의 대안으로 '시민이사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침체한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지난 수년간 술한 이견과 갈등에도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하며 불씨를 살려온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계는 노사 상생의 초심으로 돌아가 노사민정협의회에 다시 참여함으로써 남은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알음알음 채용'은 특혜 아닌가

광주시와 전남 지역 일부 시·군들이 '코로나 단기 아르바이트' 인력을 공고도 없이 알음알음 방식으로 채용해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도와 부산 등 타 지역 지자체들이 공개 모집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기존 동사무소 근무 경험이 있거나 지인 추천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인력을 뽑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주시는 지난 1일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남 인력을 각 자치구별로 자체 선발토록 했는데, 이에 따라 5개 자치구에서 모두 227명이 채용됐다. 이들은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긴급생계비나 실직·무급휴직자 생계비 신청 안내와 상담 업무 등을 맡고 있으며, 22일 동안 근무하는 대가로 1인당 223만7000원을 받는다.

문제는 '긴급인력 수월 방직'이란 명목으로 통상적인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각 자치구별로 선발된 인원은 북

구 64명, 광산구 53명, 동구 30명, 남구 38명에 달하지만 대부분이 동사무소와 주변의 알음알음으로 채용됐다. 이른바 '지인 찬스'인데 이는 전남도 역시 마찬가지다. 목포의 경우 채용된 전남 인력 33명이 대부분 동사무소 근무 경험이 있는 20대 대학생들로, 지인 추천을 받았다고 한다.

긴급생계자금 지원 사업의 특성상 시·군을 다루는 사정을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주요 기업의 채용 일정마저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취업준비생들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는 딱한 사정을 헤아린다면 너무 안일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원서 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취준생'들의 박탈감에는 왜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가.

지금부터라도 각 지자체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공공 일자리 사업에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이런 행운이 어디 있나 싶었다. "와" 절로 탄성이 터졌다. 어제 중심사 톨게이트를 지나 무등산 아래를 달리며 느낀 기분이다. 무등산 자락의 미술관 가는 길. 철쭉 등 화사한 꽃들도 인상적이었지만 이제 막 연초록으로 물들기 시작한 무등산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미술관에 도착해서 무등산 이야기부터 꺼냈다. 정승규 관장은 지극히 웃으며 동의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무등산이, 우리가 합부로 대했던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름다움은 지 새삼 느끼게 됐다." "오만한 우리에게 지구

슨과 대학생 데니스 헤이즈 등이 주축이 돼 개최한 행사에서 '지구의 날'이 선포됐고,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지구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50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부는 '기후변화주간'(22일~28일)을 선포, 기후 변화를 막고 지구를 구하는 저탄소 생활 수칙 지키기를 독려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기, 안 쓰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이용, 일회용 컵 대부

지구의 날

가 접수하라고 말하는 것 같다." 정 관장은 사람들이 왜 그리 바빠 사는지 모르겠다며 이곳저곳에 '벌처럼' 피어 있는 꽃들도 보며 가끔 해탈도 하면서 살면 좋겠다고 했다.

어제는 '지구의 날'이었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한 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유니언 오일이 시추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가 났는데, 원유 10만 배럴이 해상에 유출됐다. 이듬해 4월22일, 상원의원 게이로드 닐

안타깝게도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다. 오늘의 평화가 내일도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다. 당분간은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긴장하는 나날을 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두렵지만은 않다.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힘을 보았기 때문이다. 위기 속에서도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광주형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지금도 우리 모두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뛰고 있는 모든 분들께 큰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전한다.

기고

코로나19 시대, 공동체를 지키는 영웅들



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 완벽한 차단이다. 가계구 생활품은 광주시 관계자가 나중에 비대면으로 전달해 주었다.

이미 언론을 통해 해외 입국자는 광주 도착 즉시 격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접 경험하는 입장은 또 달랐다. 멀리서나마 얼굴 한 번 못 보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 자식마저 이토록 완벽하게 차단하는 광주시의 조치가 놀랍도록 믿음직스러웠다.

세벽넛 찬 공기 속에 내 가족, 내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수고하는 광주시 관계자들의 모습에 감사함과 송구함이 밀려왔다. 해외 입국자들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에 들어간 공무원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의 안위보다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평안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리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리 광주시는 지난 3월 8일 이후로 지역 감염 사례 발생이 한 건도 없다. 해외 유입 환자만 소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역시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이러한 안정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철저한 통제를 위해 고생한 방역당국과 밤낮없이 땀흘린 의료진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성과였다. 또한 그 한편에는 집단 감염 위험 집단 전수 조사, 확진자 동선 안내, 자가 격리자 통제, 해외 입국자 관리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준 공무원들의 노력 또한 있었다.

시'의 사회가 바로 이 곳이라는 점을 세계에 알린 것이다.

우리 광주도시철도역시 함께 했다. 월 2회 진행하던 전동차 방역을 주 2회로 늘리고 매일 역사 방역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각종 시설물을 수시로 살균 소독하며 그야말로 온 힘을 방역에 쏟았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수칙 홍보,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감성 이벤트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이전과 마음가짐이 다스 다르다.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을 곧 세계인이 따라 걸게 되리라는 긍지로 심장이 묵직해진다.

예상대로 딸의 얼굴을 잠깐 보는 것도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